

두가지 제안 -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Two Proposals

오섬훈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by Oh Seom-Hoon

9월 마지막 주에 대학동기 몇명과 청계산을 갔는데 여러 얘기 끝에 애들이 발단이 되어 평준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학교에 대한 줄세우기를 버리고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다양한 교육이 가능케 하는 평준화 정책, 특히 이해찬 1세대라는 말이 있듯이 1인 1기의 특기교육으로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이상적 목표설정, 등등...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평준화의 취지는 조금 뒤로 물러있고 사교육만 발달하고, 그러다보니 학교에서는 잘하는 애는 재미없어서, 못하는 애는 몰라서 잔다고 하듯이 학교 공교육은 다들 알 듯이 이미 죽었다! 각기 다른 능력에 맞는, 적성에 맞는 특기개발은 고사하고 수업하는 방법조차 평준화해서 아무런 성과를 못 올린다는 것이다. 한 반 내에서 여러 소 그룹으로 다른 능력의 애들끼리 묶어서 가르치든지 반을 따로 편성해서 하든지,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들 열올렸다.

일전에 공간사에서 주최하는 학생실내건축상의 주제가 'Scape'였다. 시상식 후 심사를 맡았던 교수와 나는 얘기 중 어차피 실내건축이든 바깥건축(?)이든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이나 삶에 대한 사고가 바탕이 된다면 실내, 실외 구분이나 구체적 해결책보다는 문제를 인식하는 훈련이나 그 풀이과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싶어 재미있는 주제설정이라고 느껴졌다.

비단 공모전 뿐아니라 학교내에서의 교육에서도 이와 비슷한 다양한 문제인식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교육이 많이들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학생들 뿐아니라 건축계에도 잠재력을 형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잠재력은 그 여건에 따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다. Paul.J.Grillo의 말처럼 학교에서의 교육은 단지 어렵듯한 길만 제시할 뿐 나머지는 결국 졸업 후에 자기가 가는 길에 달린 것이다. 우리네의 실제 실무현장은 이러한 잠재력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될까. 근래의 턴키나 설계경기를 보면 상위권의 계획안들은 어떤 것을 뽑아지어도 어느 정도의 질은 담보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때는 2등, 3등은 안 지어지는데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틀과 또 심사도 소신있게 될 수 있는 풍토도 필요한 것 같다. 어찌보면 우리네 설계경기는 좋은 안을 뽑는다지만, 여러측면에서 공정성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 같고..., 싸아리넨처럼은 아니더라도 책임지고 소신있게 뽑을 수 있는 풍토가 이제는 조금씩 마련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만약 2, 3등을 몇 번 하는 사람에게만 일정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설계경기를 활기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꼭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근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기분으로 설계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좀더 확대해서 공상한다면 좀 다양한 건축적 색깔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풍토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설계경기 못지 않게 비슷한 맥락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 문제라고 생각된다.

언제부터가 (아마도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후부터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감리자의 위상이 높아져서 설계자와 시공자를 좋은 말로 기술지도하고 나쁜 말로는 감시하는 제도를 택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취지에 잘 맞게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물론 기술을 갖추고 원 취지에 맞는 감리를 하는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그런 차이 없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설계자에 대한 인식 역시 그런 차이 없이 평균적으로 취급당해서 설계 감리자가 분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는 답이 30%도 안될 것이다. 현실은 정말 여러 가지 일 것이다. 허가를 얻어낸 그 이후는 잘 모르겠다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모 후배 말처럼 감리를 따지 못해도 자선사업 하는 기분으로 공사현장에 자기 돈 들여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단계까지. 이러한 여러 상황을 한가지 잣대만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프로 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형식상으로 설계자가 감리 수주하는데 우위에 설 수 있는 장치중의 하나가 전차용역에서 기점을 받는 것인데, 이것도 용역비가 5억 미만인 경우는 변별력이 거의 없다. 용역비를 적어 넣은 15개 봉투에서 뽑혀 나오는 운수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거의 없다. 감리용역비의 프로젝트 성격을 보면 대형 터키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7, 80%

가 이 범위에 드는 것들인데, 이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시공단계에서는 생색도 안 나는 자선사업에 가까운 작업을 해야한다! 그러나 뭔가를 만들어보려는 프로젝트는 거의 다 이 범주에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소위 건축가들은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흔히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견주어 보고 이리저리 재보기도 한다. 과연 전문가적 프라이드를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주어지는 일을 전문가답게 스마트하게 마무리하고 그에 걸맞은 대가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고 따져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짐작되는 부분이 이리저리 마구 손가락에 꼽힌다. 설계자가 시공단계에서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자 디자인 수행 및 발전을 위한 감리로 분리해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다. 가능성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이 여러 차례 말했겠지만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다.

서두에서 고교평준화 얘기를 길게 한 것은 평준화 정책을 펴고 나서 학생 개개인들의 서로 다름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어 실패하고 하향평준화 된 것처럼, 우리네 설계경기 방식이나 설계감리 분리방식이 공정성에 발목이 잡혀 더 이상의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비슷해 보인다. 이제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에 두고 다양한 형태의 시행방법들이 적용되어야 할 때라 생각된다. ■